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눔의 사랑들

Winter  
2018 VOL. 77



작은 선행이  
불러온 기적

작은 선행으로 새 생명의 기쁨을  
이루면 이를 기적이라 부릅니다.  
나눔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행복입니다.

# Korea Marrow Donor Program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의 생명나눔 이야기

#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kmdp.or.kr](http://www.kmdp.or.kr)



블로그  
[blog.naver.com/kmdp0311](http://blog.naver.com/kmdp0311)



페이스북  
[www.facebook.com/kmdp0311](http://www.facebook.com/kmdp0311)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mdp\\_official](http://www.instagram.com/kmdp_official)

##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을 원하신다면

- ①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남 · 여
- ② 신청장소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동자동)  
수도권 지하철 1 · 4호선, 공항철도 및 경의중앙선 서울역 12번 출구 ☎ (02)737-5533
- ③ 접수시간 : 개인인 경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방문  
단체인 경우 사전에 전화로 협의 후 출장 신청(수도권 5인, 지방 10인 이상)

※ 방문 시 사전에 협회로 전화하여 확인 후 방문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orea Marrow Donor Program

2018 Winter VOL. 77

### 04 전문가 칼럼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하여  
– 제주한라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회장 민우성

### 사랑을 나눕니다

### 08 제가 바라는 유일한 보상은요

– 기증자 박명준님

### 11 너는 나의 기적이 되었단다

– 기증자 노연지님

### 항상 고맙습니다

### 12 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혜자 이정윤(가명)님의 어머니

### 14 가진 게 많아져서 행복합니다

– 수혜자 박선진(가명)님

### 15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 수혜자 강우희(가명)님의 자녀

### 현장 STORY

### 16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식조정1팀 남지애 코디네이터

### 18 2018 제17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좋은 소식  
전합니다

### 20 KMDP NEWS

### 22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24 조혈모세포 관련 통계

### 26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27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 에서는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28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29 후원 회원을 모집합니다

### 30 Q&A :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모든 것!

### 31 개인정보 변경 및 독자투고 안내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2018 WINTER Vol. 77

2018 겨울 이야기(통권77호)

2018년 11월 16일 발행

발행인 민우성

편집책임 이양화

편집 박충민, 지수희

발행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

TEL 02-737-5533 FAX 02-737-5336, 7

E-mail : [kmdp@kmdp.or.kr](mailto:kmdp@kmdp.or.kr)

홈페이지 : [www.kmdp.or.kr](http://www.kmdp.or.kr)

# 급성골수성백혈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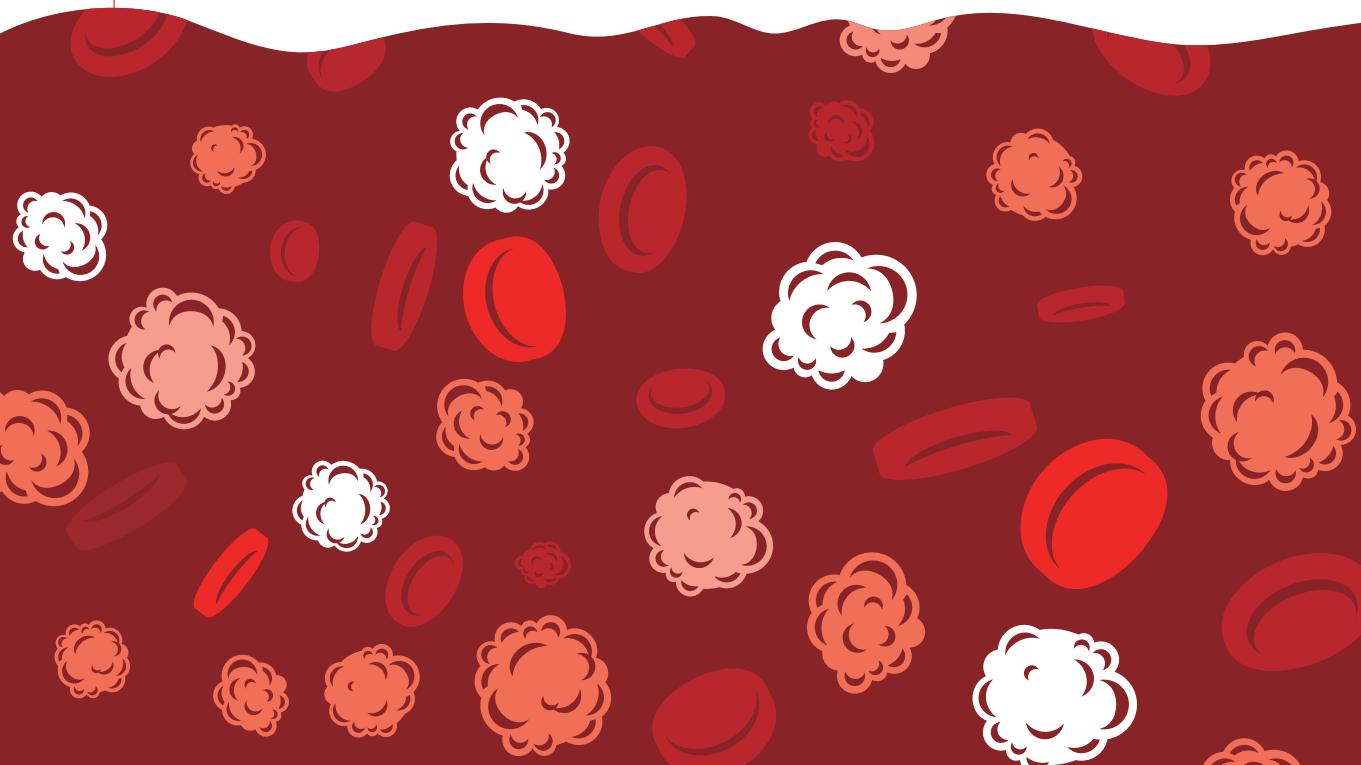


민우성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회장  
가톨릭대학교 혈액중증내과 명예교수  
제주한라병원 혈액중증내과 전문의

## AML

### Acute Myeloid Leukem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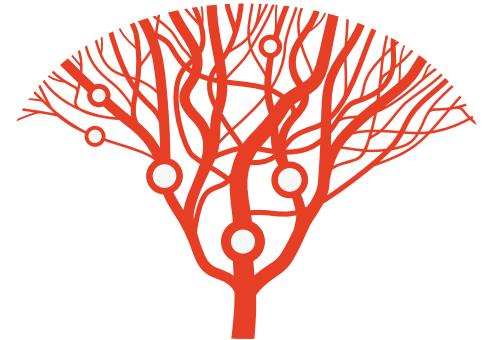
#### 개요

백혈병이란 골수라는 조혈기관에서 다양한 세포형으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미분화 세포인 조혈모세포의 초기 분화시기에 세포의 암적 변이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분열과 세포의 자연사 감소, 미성숙 세포의 골수 내 축적으로 정상적인 골수의 조혈 기능 마비 및 다양기 기능 손상 등 치명적이고 다양한 임상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흔히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림프구성백혈병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성인과 소아를 포함한 전체 급성백혈병 중 가장 흔한 형태로 성인 급성백혈병의 약 2/3를 차지합니다. 조혈모세포 중 골수구에서 분화되는 세포의 암적 변이를 보이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정상 기능을 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생산하지 못해 발생하는 빈혈, 감염 및 출혈성 신체 이상으로 갑자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급성질환입니다.

본 질환은 일단 발병하면 모두 전신에 퍼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암, 폐암과 같은 고형암의 병기로는 4기(말기)에 해당됩니다. 남녀 비율로는 남자가 약간 많으며 발생빈도는 10만 명당 4명 정도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이 증가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10만 명당 11명 이상, 80세 이상에서는 24명 이상으로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 원인과 예방법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영향 요인으로는 고령, 많은 양의 방사선 노출,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 및 이로 인한 선천성 질환(다운,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 발암물질에의 노출, 바이러스 감염, 다른 악성종양으로 인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벤젠과 같은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등이



있습니다. 본 질환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90%가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완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증상

우리 몸의 혈액세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혈구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 등의 감염에 대항하고 적혈구는 몸의 기관이나 조직으로 산소 운반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켜 치혈 작용을 돋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이러한 정상 기능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로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해지며 창백함, 두통 등의 빈혈 증상, 고열, 기침, 오한, 콧물, 폐렴, 폐혈증 등의 감염 및 발열증상, 지속되는 코피, 잇몸 출혈, 명, 점상 출혈, 뇌·폐·장 출혈 등의 반복되는 출혈성 경향, 그 외에 체중 감소, 림프선의 종대, 간과 비장의 종대, 피하 및 연부조직 혹은 내부 장기의 종괴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약 50%에 이릅니다.



## 검사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크게 골수 검사, 말초혈액검사, 그리고 각종 영상학적 검사가 필요하며 이후 치료 평가, 치료 방법 결정 및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 재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골수검사는 본 질환의 확진검사로 엉덩이뼈를 통해 채취한 골수조직과 혈액을 현미경을 이용하여 백혈병 세포의 모양을 관찰하고 항원 특성, 염색체 및 유전자 구조와 수의 이상 유무, 그리고 양을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과거보다 훨씬 정밀한 분자면역학적 검사들이 나날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신 검사법이 환자의 치료 일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초혈액검사는 말초혈액을 이용하여 전혈구(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수와 모양을 관찰하고 말초혈액 내 백혈병 세포 및 혈액 이상, 염색체 및 유전자 구조와 수의 이상 유무, 양을 확인합니다. 말초혈액검사에서도 최신의 첨단 분자면역학적 검사들이 나날이 개발되어 환자의 치료 일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감염증 및 각 장기의 기능 평가와 관련된 혈액검사, 혈액응고검사, 단층 X-선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공명영상법, PET-CT 등의 각종 영상학적 검사, 그리고 뇌척수액검사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행합니다.

## 치료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는 항암화학요법과 조혈모세포 이식, 그리고 보조치료들로 이루어집니다. 항암화학요법이란 백혈병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내과적인 약물(항암제)을 이용한 치료를 의미하며 완전 관해 유도를 목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백혈병 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각각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2~3가지의 항암제를 병행 이용하는 복합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항암화학요법은 크게 관해유도 요법과 관해 후 요법인 공고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전관해 상태는 골수에서 백혈병 아세포가 5% 이하로 확인되며 말초에서 백혈병 아세포가 보이지 않고, 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정상 수치로 회복해 간, 비장, 임파선 비대 등의 증상 소실과 골수 외 백혈

병의 부재가 최소 4주 이상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해유도요법은 완전관해 상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진단 후 바로 투여되는 1차 항암화학요법입니다. 공고요법은 완전관해 상태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 항암화학요법을 의미합니다.

한편, 급성골수성백혈병 중 특수한 아형인 급성전골수성백혈병(M3 아형)의 경우 관해유도에 베사노이드(ATRA)라는 경구용 약제와 정맥용 항암제(비소 포함)를 사용하며, 이후 수차례의 공고항암화학요법을 통해 대부분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 20%에서는 질병의 과격한 진행으로 인해 완치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란 전처치(고용량의 항암제, 때때로 전신방사선조사)를 이용하여 환자의 몸 안에 남아 있는 백혈병 세포와 골수를 최대한 제거하고 조혈모세포가 생착할 수 있는 면역학적 환경을 만든 후, 자신 또는 타인의 정상적인 조혈 및 면역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함으로써 빠른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완전관해가 된 환자의 경우 1~2차 공고항암화학요법 후 생산되는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적절한 시기에 재집하여 냉동 보관했다가 이식 전처치 후 계획된 날짜에 중심정맥관을 통해 주입합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주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 혹은 불일치하는 친가족(부모, 형제, 자매, 자녀 등), 제대혈 이식, 타인 간 이식으로 1~2차 공고항암화학요법과 이식 전처치 후 계획된 날짜에 주입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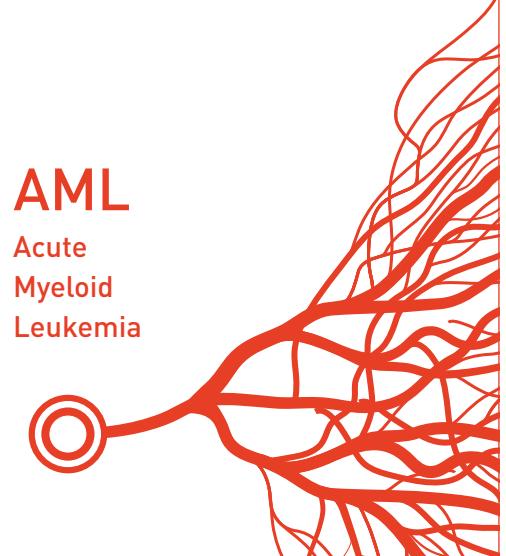
방사선 치료는 조혈모세포 이식 전 전처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 요법 외에도 백혈병 세포가 피부나 조직에 국소 침범하여 뎅어리를 형성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혈병 표적

치료는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중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양성인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하며 이식 전까지 필요에 따라 표적항암제(글리벡: Imatinib)를 복용합니다. 이는 미세간류백혈병 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단 기술 및 약물 개발에 많은 발전이 있어서 급성골수성백혈병에도 글리벡 외에 가용한 표적항암제가 다수 개발되어 임상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고령인 환자의 경우 전신 수행 능력과 다장기 기능, 약물 해독 능력 저하 및 약물 축적으로 인해 항암화학요법 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장기 손상 및 독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치료와는 차별화된 저강도의 항암화학요법과 표적면역 항암요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면밀한 임상 상태의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치료하는 환자는 중심정맥관 관리, 전문적인 감염 관리 및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혈요법, 영양 지원, 조혈성장인자 사용 등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지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AML**  
**Acute**  
**Myeloid**  
**Leukemia**



사랑을 나눕니다

## 제가 바라는 유일한 보상은요

기증자 박명준님(20대, 남)



안녕하세요. 이식이 잘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저 역시도 이번 기증 과정을 통해 저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도 얻어 환자분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조혈모세포 기증등록을 한 건 거창한 사명감이나 투철한 희생정신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기념품을 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유전자와 일치하는 환자분이 많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분은 얼마나 내 동의를 기다리고 있을까, 설령 내가 거절한다면 나는 평생 그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정밀검사 후, 유전자가 일치하니 기증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혹여 건강검진에서 기증 불가능 결과가 나올까 생전 하지 않던 운동을 시작했고, 0.1%라도 좋은 세포를 드리기 위해 매일매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환자분께서 저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지만 저 역시 환자분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생활습관이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스테판 커리는 자신의 농구화에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I can do all things)’라는 문구를 적고 매일 이를 보며 자기 암시를 한다고 합니다. 환자분도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면, 꼭 완치될 수 있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식을 받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환자분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치료 과정이 더 힘들겠지만 그것만 버티면 정말 잘 될 겁니다. 저도 환자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치되신 후에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형태로든 타인을 도우면서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 너는 나의 기적이 되었단다

기증자 노연지님(20대, 여)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군 생활 4년차로 육군 백마신병교육대대에서 근무 중인 25살 하사 노연지입니다.

##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기증 일정 조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신병교육대대 특성상 훈련병이 입소하여 바쁜 교육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의 간부님들과 부대 내 관계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습니다. 덕분에 DNA 검사부터 조혈모세포 기증까지 어려운 점 없이 순탄하게 잘 진행했습니다.

## 백혈병소아암협회에 모발을 기증하시는 등

### 평상시에도 기증에 대해 긍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은

#####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대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진행된 조혈모세포 관련 캠페인에서 매년 혈액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는 증가하는데 기증자가 없어 환자와 가족들 모두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되고 싶었던 마음에 기증을 신청했습니다.

## 기증하시기 전, 혹은 기증희망 등록하시기 전에

###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혈액을 만들어내는 엄마 세포가 조혈모세포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것과 비혈연간에도 유전자가 일치할 수 있고, 기증도 가능하다는 것은 대학생 때 캠페인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 기증희망을 신청하시고 연락이 온 건 얼마만인가요?

### 또 첫 느낌은 어땠나요?

2014년 9월 30일에 기증 신청을 한 후 올해 4월 저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4년 만인 거죠. 연락을 받았을 당시 마치 '선택받은 사람'

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 기증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수많은 사람 중 나와 그 소아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것은 그 소아환자가 반드시 '살아날 운명' 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반드시 나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해서 소아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선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주변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가족들은 물론 부대 간부들 대부분이 조혈모세포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고 4년 만에 일치 환자가 나와 기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프지 않겠느냐며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다들 좋은 일을 한다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셨습니다. 본인도 도움이 되고 싶다면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 방법을 물어보시는 간부님들도 있었습니다.

## 기증 과정을 끝마치고 난 기분과

### 신체 컨디션은 어떠했나요?

기증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침 때까지 컨디션은 항상 최상이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듯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자 평생의 자랑거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 기증 이후의 생활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나요?

내가 살아있으므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며 '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기증 받으시는 수혜자분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안녕, 아이야.

내가 너에 대해 아는 것은 아직 어린 남자 아이란 것뿐이지만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어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 협회로부터 나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아이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 내 신체의 일부로 누군가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기적이 되었단다.

얼른 건강해져서 당당하게 부모님 앞에 서자! 새로운 삶을 살자! 나의 군인정신 가득한 세포를 받아서 국가관과 안보관이 뚜렷한 올바른 사람이 되고, 나의 든든한 힘을 받아서 건강한 체력도 유지해줘. 그리고 정말 나라에 보탬이 되는 멋지고 큰 사람이 되길 바랄게. 너의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앞으로도 네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겠지만 나는 항상 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할게. 정말 고생 많았어.

## 많은 분들이 아직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 기증을 막설이고 계시는데요.

#### 그런 기증희망자 혹은 기증자분들에게

#####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기증하는 과정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음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환자 가족들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환자를 생각하니 반드시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기증을 해보니 통증도 없었고, 기증 후에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만약 기증을 막설이고 있다면 이렇게 밀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 기적을 그냥 놓아 버리시겠습니까?"



## 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혜자 이정윤(가명)의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기증자님께서 기증해주신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건강해진 이정윤(가명) 엄마입니다.

기증해주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답니다.

항암을 마치고 기차 안에서 38도가 넘어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정윤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기증자님의 고마운 마음을 생각하며 힘든 항암을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골수성이라는 무서운 백혈병 친구를 만나서 항암을 할 때마다

밥도, 물도 맘대로 마시지 못하고 서울에서 집(지방)까지

먼 거리를 기력도 없는 아이를 업고 이동하며

“이번만 버티자! 이번만 버티면 건강한 오빠의 조혈모세포를 받을 수 있다!”고

정윤이한테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병원에서는 몇 번이나 숨이 넘어가는 고비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못 쉬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님의 조혈모세포가 한 방울 한 방울 이식되었죠.

그리고 그 이식된 조혈모세포가 잘 적응했다는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너무 기쁜 나머지 병원 로비에서 간호사 선생님을 붙잡고 엉엉 울었답니다.

지금 우리 이쁜 정윤이는 기증해주신 조혈모세포의 힘으로

다시 이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요.

00이었던 백혈구 수치가 지금은 3천에서 7천 사이로 부쩍 늘었답니다.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즘 정윤이는 유튜브를 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또 부쩍 인형에도 관심이 많아져서 큰오빠랑 작은오빠랑 함께

미미 인형을 들고 인형 놀이도 한답니다!

기증자님! 기증자님은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 맘을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정말 힘든 결정이시고 어려운 한 걸음 한 걸음에 몸도 힘드셨을 텐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하며 항상 기증자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할게요.

우리 이쁜 정윤이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얻은 감사한 생명, 늘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큰 용기 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기증자님 큰마음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윤이 엄마 드림



## 가진 게 많아져서 행복합니다

수혜자 박선진(가명)님



딸아이는 아빠가 아팠던 건 아는데 그냥 감기처럼 아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아이 앞에서 우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빠가 생사가 오가는 병인 줄 아직도 모릅니다. 하하하.

그래도 딸아이가 저를 닮아 성격이 밝아요.  
한마디로 아빠와 딸이 죽이 잘 맞는답니다 ^^\n

이식 3년째가 되던 날,  
골수검사를 할 줄 알았는데 채혈검사 결과가 좋아서  
이상이 있을 시에 골수검사 하자고 해서 건너뛰었습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더 드리자면, 당뇨는 주사 인슐린이나  
구강약도 전혀 안 먹은 지 1년째라는 사실입니다. 당뇨는  
자연적으로 완치되었습니다. 이식 부작용 숙주 반응이라  
는데, 뭐 지금은 거둔합니다.

점점 봄가을이 짧고 여름, 겨울이 바로 오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덥고 폭염이 오더니 추석이 지나고 벌써 이식받은 지  
3년이 되었네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죠?  
참으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기증자님과 저는 가진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새 삶을  
사랑으로 받아서 행복합니다. 기증자님께서도 소중한 한  
사람이 아닌, 저와 제 가족에게 생명과 행복을 기증해  
주셨으니 남들보다 가진 게 많지 않나요?

살아있을 때 건강을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  
합니다.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딸도 초등학생 4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번 겨울에  
모자를 썼더니 제 딸이 절대 그 모자는 쓰지 말라네요.  
예전에 헝암으로 머리카락이 없어 추위를 막고자 파란  
모자를 썼거든요. 지금도 그 파란 모자는 절대 못 쓰게  
합니다.

기증자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새들에겐 둉지를, 잎은 땅의  
거름으로, 사람들에겐 그늘이 되어 주며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한 그루의 나무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목재가  
되어 주기도 하고요.

기증자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증자님의 가족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상처는  
언젠가 아물고, 그 상처가 덧나면 약 바르면 되듯이 세상  
일도 영원한 건 없으니 얼음같이 살 자신이 없으면 불같이  
살라 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게 살면 미워하며 살 터이고,  
불같이 살면 사랑하며 삽니다. 여기 불꽃 남자가 편지를  
씁니다. 하하하.

부디 가족들과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오늘도 하늘 한 번 쳐다보고 기도드립니다.

기증자님.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수혜자 강우희(가명)님의 자녀

고마운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아저씨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저씨를 병원에서 꼭 보고 싶어요.  
또 아저씨가 고마워서 과자 선물을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저씨랑 우리 가족이랑  
같이 롯데월드를 가고 싶어요 꼭! 다시 한번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그미기년 10월 17일 화요일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형아께  
안녕하세요  
형아고맙습니다  
형아도 건강하세요

선물

고마운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아저씨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저씨를 병원에서 꼭 보고 싶어요.  
또 아저씨가 고마워서 과자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저씨랑 우리 가족이랑 같이  
롯데월드를 가고 싶어요. 꼭!  
다시 한번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형아께  
안녕하세요  
형아 고맙습니다  
형아도 건강하세요



##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식조정1팀 남지애 코디네이터



안녕하세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근무한 지 10개월이 된 남지애 코디네이터입니다. 입사한 지 오래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배워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이곳에 입사하기 전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지만 혈액암 질환 환자들과는 거리가 먼 다른 곳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흔히 알고 있듯이 저 역시 골수 이식이라고 하면 골반에서 골수를 채취해서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인 저조차도 조혈모세포 이식은 ‘두려움’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협회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조혈모세포 기증이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말초혈채취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조혈모세포 기증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선뜻 나서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암 환자분들을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적극적으로 기증 의사를 밝혀주시는 기증자분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낍니다.

현재 4,500명 정도의 혈액질환 환자들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이루어지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은 약 600건 정도입니다. 현재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인원은 약 34만 명 정도이며, 이식 대기 환자들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증희망자가 필요합니다. 기증희망 등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혈액질환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환자를 위해 선뜻 조혈모세포를 기증해주신 기증자분들에 대한 예우 역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이식을 받으신 환자분들이나 환자 가족분들이 기증자분께 감사 편지를 써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 시 환자와 기증자분은 직접 연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식조정기관인 우리 협회에서 편지를 전달받아 기증자분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편지를 볼 때마다 이식받으신 환자와 그 가족분들이 너무나 고마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져 항상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런 편지를 볼 때면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시는 기증자분들께 저도 함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처음 환자와 기증자분의 유전자형 일치가 확인된 후 기증 의사 확인부터 기증이 진행될 때까지 빠르면 2개월에서 길면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가장 고생하셨을 분은 기증자분이실 텐데도 기증이 끝나고 인사를 드릴 때 오히려 기증자분들이 저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면 감사 인사를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조금이나마 기증 진행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희망의 씨앗을 통해 진정한 나눔을 보여주신 모든 기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낳고, 나아가 새 희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실 환자분들과, 유전자형이 일치되는 기증자를 찾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 2018 제17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2018 제17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이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올해는 9월 15일 홍대 비보이전용극장과 걷고싶은거리에서 그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이 어느덧 24년이라는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기증자 여러분의 고귀한 생명나눔 실천을 통해 5천여 명에 달하는 환자분들이 새 생명을 선물받았습니다.

‘Thanks Your Love’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조혈모세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분들을 비롯해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모집기관, 조혈모세포 채취센터 및 이식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과 후원자분들까지 약 300여 명이 참석해 기쁨의 날을 함께 즐겨주셨습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김재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민우성 회장님의 개회사와 감사패 수여, 홍보대사 배우 김명국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부자(父子) 기증자인 조정남님, 조현우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조혈모세포 이식사업에 소중한 도움을 주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및 충남대학교 이수진 코디네이터님께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이어 서울대학교병원 소아환우회 대표 주순남님께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된 수혜자 가족의 편지를 대신하여 읽어주셨으며, 기증자 모임 ‘징검다리’ 대표 노봉수님께 감사의 꽃다발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는 토크 콘서트와 비보이 공연 ‘KUNG’으로 꾸며졌습니다. 개그맨 정명훈님과 개그우먼 오나미님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는 ‘희망과 꿈을 나누는 이야기’를 주제로 기증자분들의 생생했던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외부의 경우,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야외무대의 멋진 공연과 함께 모든 시민분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캘리그라피, 3D 이름표 만들기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조혈모세포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홍보대사로 정명훈님과 오나미님을 위촉하였으며, 특히 정명훈님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서 기증 희망자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어주신 많은 분들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18 제17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분들, 그리고 참석해주시고 도움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더 많은 분들에게 새 생명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KMDP NEWS

## 01 2018 제17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개최

2018년 9월 15일, 서울 흥대 비보이전용극장에서 '2018 제17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은 '세계조혈모세포 기증자의 날(World Marrow Donor Day)'과 동시에 이루어져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어주신 기증자, 기증희망자, 의료관계자 및 유관 기관 등 다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의 18~19p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02 2018 국제조혈모세포이식학회 & 제23회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대회 참석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2018 국제조혈모세포이식학회(ICBMT) & 제23회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KSBMT)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학회는 해외 연자 18명 등 총 70여 명의 국내외 석학이 함께하여 조혈모세포 이식과 치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도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기증(이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03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 기증자모임 '징검다리' 간담회 진행

2018년 9월 1일,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 기증자 모임 '징검다리'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1부 부경대학교 거리공연장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캠페인, 2부 기증자와의 만남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의 기증자분들을 만나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부 · 울 · 경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의 기증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 04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 2만 분의 1의 기적, 조혈모세포 이식> 방영

2018년 9월 26일,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 2만 분의 1의 기적, 조혈모세포 이식>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과 이식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이번 방송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기적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05 푸르덴셜 착한 프로젝트 공모전 활동보고회 및 표창장 수여

2018년 7월 27일, 푸르덴셜 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하는 '푸르덴셜 착한 프로젝트 공모전' 활동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착한 프로젝트 공모전은 조혈모세포 기증의 인식 개선을 위한 대학생 프로젝트 기획 공모전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벌써 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공모전의 경우 중앙대 'BE with you', 연합동아리 'TEAM BAMP' 두 팀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분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항상 생생한 프로젝트로 조혈모세포 기증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푸르덴셜 사회공헌재단에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Korea  
Marrow  
Donor  
Program

#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계신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6월~10월 활동 내용)



함께해주신 푸르덴셜 사회공헌재단 '착한공모전' Be with you, 91정비대대, 조혈모세포이식학회, 부울경 징검다리, 광주보건대학교, 대구·경북지사 RCY(안동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경주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신한은행 강원 영포스, 대전보건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등 기쁨을 나누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개인 및 단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신청 문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내선112)

## 조혈모세포 관련 통계

## 조혈모세포(골수) 기증희망자 등록 실적



자료제공 : 장기이식관리센터

##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실적



## 기증 제대혈 이식 현황



※ 상기자료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한 실적임.

※ 제대혈은 2014. 10. 1부터 국내 일부공급을 중단,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관리함.

증해주신  
모든 분들  
사합니다



##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2차 이식, 저소득층)



대한적십자사



### ♥ 지원대상

가. 2차(재발) 이식환자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중 재발하여 우리 협회를 통해  
2차 이식(DLI 포함)을 시행(예정)한 분

나. 저소득 계층 환자  
우리 협회를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예정)한  
분 중 저소득 계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인  
분(2018년 3월 23일 이후 이식 및 예정자)

### ♥ 지원금액

가. 2차(재발) 이식환자  
금 일백만원 정 (₩1,000,000)  
나. 저소득 계층 환자  
금 이백만원 정 (₩2,000,000)

### ♥ 지원일정

2018년 5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선착순 접수 후 심사,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심사 후 지원이 확정된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작성 후 우편접수  
※ 접수처 : (0433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동자동)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환자치료비지원 담당자 앞  
※ 지원서 양식은 각 병원 사회사업실 혹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문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내선 110)



'징검다리'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을 실천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후 아직 '징검다리'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번 가입해보세요! 새 생명의 기쁜 나눔을 실천하신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이야기의 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징검다리'는 기증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지역별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 그룹 '징검다리-조혈모세포 기증자모임' ([www.facebook.com/groups/1605998819677212/](http://www.facebook.com/groups/1605998819677212/))을 통해 기증자 동호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 안내

매월(3월~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기증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공지는 페이스북 그룹(징검다리-조혈모세포 기증자모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서울 · 경기 총무 박충희 010-2620-0079
- ▶ 대전 · 충청 총무 임재영 010-9421-5936
- ▶ 부산 · 울산 · 경남 총무 이호영 010-8889-5723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대해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1. 기업후원 회원



### 2. 일반후원 회원

( '18. 05. 01. ~ '18. 10. 31)

후원액	회원명 (가나다 순)
3천원	박우철, 임민규
5천원	강지영, 김미희, 김선아
1만원	김경민, 김동휘, 김성철, 김채영, 박인태, 박하늬, 석기웅, 오동한, 유상재, 윤필이, 이금자, 이정선, 주영애, 익명
2만원	김유리, 김종규, 명전식, 오동한, 오현아, 유경선, 윤정선, 이대우, 조근수
3만원	김태임, 김태환, 오중걸
5만원	박후근, 서혜경
5만 7천 4백원	민우성
6만원	조현식, 최지인
10만원	이자길

### 3. 정기후원 회원

( '18. 05. 01. ~ '18. 10. 31)

월 정기후원액	회원명 (가나다 순)
1천원	강승기, 강행경, 김수호, 김은진, 손승완, 손진화, 유현철, 이은지, 전수진
2천원	김미란, 박상실, 박세림, 박수경, 박철희, 오덕교, 유승수, 이상현, 이언욱, 이용섭, 임명희, 전동완, 호인걸
3천원	곽광태, 김미영, 김선정, 김수동, 김영자, 김지연, 박진솔, 양철우, 이태찬, 이형희, 전도석, 조성호, 흥유선
5천원	강동우, 강용래, 강원구, 강형석, 고현아, 김대중, 김미소, 김미현, 김민지, 김순영, 김예래, 김은숙, 김은실, 김은혜, 김자영, 김지훈, 김진관, 김정범, 김희, 박미라, 박설화, 박사원, 박윤우, 박천우, 박태진, 박현민, 사공학주, 성진기, 신미란, 양컨, 오현숙, 원용식, 원령식, 유영철, 윤현미, 이금주, 이동호, 이상기, 이수경, 이수현, 이은화, 이정호, 이지영, 이하슬민, 이하승, 이현아, 장경호, 장영석, 정경순, 정달영, 정성미, 조성빈, 조정희, 조호채, 차종철, 차령덕, 최강민, 최사빈, 최승현, 최연정, 최유나, 최윤철, 최은진, 하세린, 한순우, 함경지, 허미경, 흥경석, 황원연, 황원철, 황은선, 황정환, 황지원, 그린파인티
6천원	권정미
7천원	정은장
1만원	강득록, 강인보, 고영일, 고현종, 공미아, 공지현, 권명순, 권정도, 김권중, 김기희, 김도희, 김동휘, 김병주, 김병한, 김봉규, 김상철, 김상현, 김석철, 김성중, 김세진, 김영재, 김유성, 김은경, 김은아, 김인숙, 김정수, 김정현, 김진우, 김진웅, 김태현, 김태현, 김학기, 김현엽, 김혜민, 김혜정, 노구동, 노영림, 문변영, 민병욱, 민주영, 박상현, 박석환, 박성윤, 박세웅, 박승노, 박안나, 박이웅, 박인걸, 박인태, 박찬영, 박준영, 박혁철, 박혜정, 방극희, 배원선, 백승진, 설희순, 설주현, 송병덕, 송종필, 송지섭, 송철호, 신명준, 안진혁, 안효선, 양병관, 어해숙, 연철수, 오수현, 오연미, 우영택, 유번림, 육전수, 윤미정, 음공관, 이기환, 이미란, 이민우, 이민호, 이상민, 이상환, 이서현, 이석영, 이수나, 이영재, 이영비, 이영호, 이은진, 이재석, 이지연, 이지혜, 이창휘, 이한나, 이해정, 이화영, 이효석, 임선목, 임선영, 장재식, 장지연, 전성대, 정기업, 정기운, 정승혁, 정영권, 정정선, 정정숙, 정진영, 정혜나, 조규섭, 조덕진, 조동형, 조한승, 차선우, 차종주, 채은석, 천소영, 천진원, 최미월, 최상필, 최언화, 최용혁, 한성심, 한성호, 한송희, 한연숙, 한영숙, 한원배, 한윤학, 함정은, 하란경, 한정희, 현진, 흥지운, 흥혜경, 황대만, 황용
2만원	김현아, 이중무
1만 2천원	임보나
1만 5천원	문정숙, 박소라, 송진솔, 오지연, 임한삼
2만원	고유리, 고윤석, 공성진, 김경심, 김주성, 김충만, 노영경, 박금란, 서태호, 신용호, 신용환, 오흥범, 유우진, 이유진, 이재수, 이재호, 조향민, 한보석, 흥민지
3만원	김범준, 김정환, 김지현, 문준호, 문형곤, 배인귀, 서동진, 신진경, 이경희, 이동훈, 임성빈, 임재영, 최승관, 최우석, 지성문화재천사
5만원	김병국, 김화원, 박봉태, 박영재, 이경희, 이혁중, 장효식, 흥유성, 오피스퀵앤휴브
8만원	김종명
10만원	최관호

### 후원 회원을 모집합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CMS 자동이체** : 후원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가입신청서 협회로 발송(E-mail : KMDP@kmdp.or.kr / Fax 02-737-5336, 5337 / 우편) → 전화 통화 본인 확인 → 등록번호 ♥CMS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은행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매달 자동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CMS 등록을 위해 성함,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 출금일, 예금주를 명확히 적어주세요. ♥신청서는 홈페이지(www.kmdp.or.kr) → 누나는기쁨 클릭 → 후원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클릭 혹은 협회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달해 드립니다.

**은행 자동이체** : 거래은행 방문 → 매달 약정액 자동이체 신청 → 협회로 유선연락(02-737-5533) → 가입신청서 작성 → 가입신청서 협회로 발송 ♥은행 자동이체는 본인이 직접 거래은행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입금계좌 참고) ♥거래은행을 가실 때, 통장, 거래인감,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시는 분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자동이체 하실 수 있습니다.

**지로 납부** : 협회로 연락(우편 또는 전화 02-737-5533) → 협회 확인 후 지로용지 발송 → 지로용지 작성 후 거래은행 납부

#### 후원 계좌번호

입금하신 분의 성명 또는 단체명을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예금주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국민은행 827-25-0014-731 신한은행 140-003-278130 우리은행 004-649426-13-001 농협 047-17-002467 우체국 010017-01-013591

### 후원 회원 가입신청서

※ 우리 협회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에 의거 '공익성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등록되어, 후원해 주신 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연말정산),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회원 정보(필수기재사항)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 ■ 출금이체 신청(필수기재사항)

계좌 정보	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 명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연락처	예금주와의 관계
후원 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5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출 금 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 기관정보 및 정보제공 동의

성명 (단체명)	선택사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선택사항

#### ■ 기관정보 및 정보제공 동의

기관명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고유번호	105-82-09113	수납요금종류	후원금
대표자	민우성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		
전화번호	02-737-5533(114) 기종증진팀	메일	kmdp@kmdp.or.kr	팩스	02-737-5336,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수사항)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업자번호(주)아리变得更에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등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등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수사항)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주)아리变得更에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협회 소식지 및 각종 홍보물(기념품 등) DM 발송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인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모든 것!

##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는 것을 모아모아! 알려드립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아프지는 않나요? Q

A.

근래의 조혈모세포 기증은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인 말초혈 조혈모세포 채취를 통해 진행됩니다. 헌혈하는 정도의 통증을 참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후,  
언제부터 학교나 직장에  
복귀할 수 있나요? Q

A.

조혈모세포 기증 후 통증이나 불쾌감 등의 자각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다음 날부터 학교나 직장 등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취 후 일주일 정도는 채취 부위를 청결히 유지하고 과격한 운동은 삼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혈모세포는 기증 후 약 2~4주 내에 정상 수치로 회복됩니다.

Q 나의 조혈모세포 기증자,  
나의 조혈모세포 수혜자를  
만날 수 있나요?

A.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한 업무 처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환자와 기증자 간의 만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편지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Q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A.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은 만 18~40세까지 가능하며, 실제 기증은 만 55세까지 가능합니다. 조혈모세포의 안전한 기증과 이식을 위해 만들어진 법적 기준으로 기증자와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개인정보 변경 및 독자투고 안내



주소와 연락처가 바뀐 경우 꼭 변경해 주세요!

기증희망 등록 이후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주소, 연락처 변경을 꼭 해주세요. 그래야만 기증희망자님과 유전자(HLA)형이 일치하는 환자분이 나타났을 때 바로 연락드릴 수 있답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 꼭 변경해 주세요.

(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희망 등록자만 정보수정 가능)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www.kmdp.or.kr](http://www.kmdp.or.kr) 접속 → 개인정보변경 신청 클릭 → 변경내용 기재 → 확인

전화로 변경하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02-737-5533, 내선 112)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기부해 주세요!

수혈로 인한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백혈병 및 혈액질환 환자들은 조혈기능 저하, 혈소판 감소 등으로 인해 치료과정에서 수혈이 꼭 필요합니다. 기부해 주신 헌혈증은 지원규정에 따라 혈액질환으로 치료중인 소아 및 성인 환자들에게 보내집니다.

헌혈증 기부 문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02-737-5533, 내선 11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동자동)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앞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본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실 내용은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 백혈병 등의 환자 투병수기, 조혈모세포 이식 및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교양, 사회교육, 수필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우리나라의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택된 수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